

# “구도하듯 年中 유물찾기”

## 산문박의 禪

미술사학자 진홍섭 박사

삼복더위 들판에서 석비 실측  
한겨울 찬바람 맞으며 탁본  
산간오지서 지도들고 답사여행



지난 1966년 10월13일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보수를 위해 해체됐을 때 진홍섭박사(78·전 문화재위원)등 문화재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석가탑 2층 탑신부에 사리구멍이 있고 그 안의 금동사리함에서 사리병과 함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것이다. 그후 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이 <다라니경>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로 확인됐고 국보 126호로 지정됐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끈으로 묶여 비단에 쌓인채 통풍이 잘 되는 사리함 맨위쪽에 있었지요. 해방후 처음으로 가장 귀중한 유물을 발견했다고

間奧地)에서 남루한 의복에 수염까지 털수룩한 채 지도를 들고 답사여행을 펼치다 보면 간헐적으로 오인받아 곤욕을 치루는 것은 예사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보물찾기(?)라는 고행(苦行)도 귀중한 유물을 찾는 순간엔 환희심으로 바뀐다. 며칠 또는 몇달간의 피곤함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마치 수십년의 어려운 수행 끝에 건성(見性)의 단계에 도달한 구도자가 하나의 집념 아래 겪어온 고난의 과정은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과정인 것처럼...

어떻게 유물을 마주한 순간부터는 모든 작업이 즐겁기만 하다. 작업중에

### 참다운 수행방법을 알려주세요

**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대로 살아가는 인도는 것이고 무언가 삶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더위가 불자라면 삶이 곧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하는게 참다운 수행인가라는 질문을 하고보면 선택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행방법도 너무나 많은 것 같구요. 스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수행의 요체로 삼으십니까? (이영빈·부천시 원미구 삼곡동)

**답** 우주 삼라만상이 죄다 부처의 나뭇아닌게 없으니 부처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짐의 형상계에는 깨달음과 미혹이 있지요. 수행문제는 미혹한 중생을 위한 것인데 나는 '일체 경계를 남김없이 주인공-부처자리에 되돌려 놓아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그냥 믿어라, 믿어라 하는 맹목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바로 되돌아보고 가르침을 잘 받는데서 나옵니다. 바른 믿음이야말로 수행의 첫 걸음이자 근본입니다. 그러면 나란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확연하게 풀린다면

### 산신 믿으면 가피 받는지요

**문** 사찰엘 가면 산신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불자들 중에는 대웅전 참배는 그냥 건성이고 산신각을 더 선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피를 받는다고 믿는 것일까요. 스님께서는 산신신앙을 부인하시는지, 인정하시는지요. (권정만·서울 서초구 서초동)

**답** 부인한다, 인정한다는 것은 다 중생심의 말이요. 구태여 따지려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속에 담겨진 뜻이지 형상은 아

**지 상 상 담**

길 잃은 나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성에 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음선원 대령스님께 문의를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방법의 참맛을 알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를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나야 그냥 나지 무엇이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부터 정혈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진 육신의 나이지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나일 뿐입니다.

참고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지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을지 제 마음대로, 제 설계대로 짓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기의 심성이나 성격 등을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아기의 모습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비밀을 짐작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알 것 생각하기에 그 비밀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는 연방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항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나로 있을 때 세상은 마땅치 않고 삶은 고(苦)가 됩니다.

반면에 가르침은 그런 나 아닌 참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참나라고 하면 금방 '또하나의 나'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또하나의 나'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중생심입니다.

말하기 쉽게 나의 나를 거지 나, 뒤의 나를 참나라고 하지만 참나와 거지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려져 거지 나의 근본이 참나요. 참나 아니라고 해야 옳지요.

니라고 해야 하겠지요. 원리만 잘 안다면 그 속에도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데 요는 기본적으로 믿기 때문에 탑입니다.

산이란 땅이든 모든게 다 생명이 있으니 거지나 산신,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산신이 따로 있고 지신, 용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지수화풍이 다 뭉쳐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보면 지·수·화·풍이지만 크게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보면 지신, 산신, 용왕신이나 크게는 다 하나거든요. 떼어놓고 보는 것은 '덜' 하지 않고 코, 눈, 입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눈 가는데 귀 가고 귀 가는데 눈 가지요. 어찌 산신 따로 부처 따로 이겠습니까?

부처는 전체입니다. 부처! 하나가 산신 용신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요. 말하자면 부처는 얼굴, 지신은 코, 산신은 귀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용법으로 보면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려 할 때도 있고 귀를 중국 세워서 소리를 들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상 조성해 놓고 '부처는 전체' 하면 될 것을 왜 그림 그림 쪽 그려 놓고 예서 빌고 재서 빌어야 가피를 입는단, 마음이 편하다 합니까?

그런 다 사람이 산신을 생각하거나 산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장을 생각하거나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요. 따라서 사람이 귀신짓을 하면 귀신이 있는게 되고 귀신짓 안하면 없는 것이요.

산신, 자신 찾으면 왜 목신, 석신, 수신, 풍신은 안찾고 산신만이겠습니까?

## 문화유산은 민족혼... '불교미술사 완성' 50년화두 “안다는 것에 냉혹한 비판과 질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화여대박물관장으로서 석가탑을 조사하는데 참여했던 진홍섭박사는 그날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한다. 진박사는 석가탑이 깨지고 훼손된다는 연락을 받고 황수영 전중국대총장과 작고한 최순우 전국립중앙박물관장, 정영호 한국교원대박물관장 등과 함께 경주로 내려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도굴꾼들이 탑신을 들어 올리고 추워서 탑이 기울고 사방에 돌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탑을 조사하기 위해 총병로 탑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사리와 경전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놓았다고 한다.

진박사는 불상 석탑 등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학술조사를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물을 향해 달려든다. 때로는 깊은 산속에 서 때로는 환란한 들판에서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할 선인들의 얼을 확인하기 위해 추위와 더위, 외로움과 배고픔도 잊고 유물을 찾아 헤맨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인적이 끊어진 산간오지(山

間奧地)에서 남루한 의복에 수염까지 털수룩한 채 지도를 들고 답사여행을 펼치다 보면 간헐적으로 오인받아 곤욕을 치루는 것은 예사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보물찾기(?)라는 고행(苦行)도 귀중한 유물을 찾는 순간엔 환희심으로 바뀐다. 며칠 또는 몇달간의 피곤함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마치 수십년의 어려운 수행 끝에 건성(見性)의 단계에 도달한 구도자가 하나의 집념 아래 겪어온 고난의 과정은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과정인 것처럼...

주동과를 묵인한 비겁한 문화재행정에 항의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85년 우리나라 미술사와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하고, 차가운 겨울날 부도와 석등을 조사할 때는 바람에 날리는 화선지를 어떻게 부쳐 담영(滌影)을 진행하면서 섬세한 조각수법을 고찰하기도 했다. 그는 일생의 화두인 '불교미술사'의 완성을 위해 이러한 과정을 50여 년간 묵묵히 되풀이했다.

“집게 잡힐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학문이며 집인 것같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잡고자 하던 실태가 아닌 것이 학문이어서, 학문이란 그만큼 깊고 먼 것이고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한 냉혹한 비판과 질타가 따라야 합니다.” 그의 엄격한 학문관은 스스로에 대한 계율처럼 들린다.

“학문의 길을 택한 후학들이 선인들이 보여준 역경(歷程)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따르려 함은 못속에 비친 달의 모습을 찾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

“안다는 것에 냉혹한 비판과 질타가 필요합니다”

“학문의 길을 택한 후학들이 선인들이 보여준 역경(歷程)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따르려 함은 못속에 비친 달의 모습을 찾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학문의 길을 택한 후학들이 선인들이 보여준 역경(歷程)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따르려 함은 못속에 비친 달의 모습을 찾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학문의 길을 택한 후학들이 선인들이 보여준 역경(歷程)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따르려 함은 못속에 비친 달의 모습을 찾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학문의 길을 택한 후학들이 선인들이 보여준 역경(歷程)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따르려 함은 못속에 비친 달의 모습을 찾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학문의 길을 택한 후학들이 선인들이 보여준 역경(歷程)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따르려 함은 못속에 비친 달의 모습을 찾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지명수배)**

**이름**  
· 성 경 섭  
· 당 40세  
· 주민등록번호 571120-1702810

**특징**  
· 키:173cm  
· 경상도 억양 서울 말씨  
· 안경착용 (착용 안할수도 있음)  
· 현상금 : 2,000만원

위사람은 특경법 위반 지명수배자임.

**연락처** 직통 (02) 3661 - 2256  
(02) 3661 - 8903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8기 佛敎義式(범음·범패)學入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태징,요령,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오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 작법(나비춤) 등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원서접수 : 1996년 3월 18일~4월 23일  
■개강일시 : 1996년 4월 2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서울특별시 중로구 낙원동 243-3  
·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隱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사용에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립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27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